

* 달마가 벽(面壁)을 하고 있었다. 이조(二祖)가 눈 속에 서서 팔을 자르고 말하기를, "제 마음을 편히 못합니다. 제 마음을 편안히 해 주십시오." 달마가 말했다. "마음을 가지고 오나라. 편하게 해 주마." 이조가 말했다. "찾아보면 없습니다." 달마가 말했다. "내가 네 마음을 편하게 해 주었다."

한형조 무문관 탐방

68 달마의 파도 ①

* 나 해가 말한다. "이빨 빠진 늙은 오랑캐, 심민리 뱀질을 학학대며 왔으니, 가히 바람도 없이 일으킨 물결' 이구나. 나중에 문인 하나를 얻었는데, 그 또한 불구자라. 저런! 어리석은 자, 낮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구나."

* 송하여 가로되, "서쪽에서 와 곧바로 가리킨 것, 그 부처로 하여 사단이 벌어졌네. 총림을 소란시킨 장본인이 본시 너 아니더냐."
連聲安心: 連聲而壁, 二祖立雪斷崖云, 弟子心未安, 乞師安心. 麴云, 將心來, 爲汝安. 祖云, 覓心, 了不得. 麴云, 爲汝安心竟. 無門曰, 缺齒老胡, 十萬里航海, 特特而來, 可謂是無風起浪. 未後按得一箇門人, 又却六根不具. 嗚! 謝三郎不識字. 頌曰, 西來直指, 事因難起. 捷叢林, 元來是爾.
〈무문관〉의 연재를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썼던 것을 기억한다. "AD 6세기 갈게일을 타고 북위의 수도 낙양에 나타난 서역승의 전설로부터 선의 역사



"불안한 마음 찾아보면 없네"

작은 지혜 가벼운 마음으론 더 없는길 도달못해

는 시작된다. 소림사의 벽과 눈 쌓인 트랙의 붉은 선을 거쳐 6조에 이르러 선은 새로운 불교운동으로서의 기반과 동력을 얻었다.
그동안 우리는 그 이후의 선의 발전과 정정을 살펴보았다. 지금의 화두는 있고 있었던 바로 그 처음, 선이 시작되던 때의 이야기를 적고 있다. 일반적인 역사기술방식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의아스런 설정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만 〈무문관〉은 예시당초 역사적 사실이나 시간적 순서보다, 그를 넘어서는 초시간적 진실을 타겟으로 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그때까지 중국불교의 발전은 중국북부의 육로를 통한 교학으로 특징지어진다. 그런데 달마는 그 혁신적 주장만큼 색다른 경로와 방법으로 중국에 도달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남방에서 해로로 갈대를 타고, 그것도 궁벽한 시골변두리인 지금의 광동(廣東) 근처에 도착한다. 그리고선 당대 불교의 심장인 북위(北魏)의 수도인 낙양으로 올라가 양(梁)의 무제(武帝)를 만나 답관을 짓는다.
무제는 부처님의 법을 믿고 그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자신의 정성과 국가의 재정을 송두리째 바쳤던 사람이다. 그는 서역에서 온 승려에게 자신의 공적을 자랑하고 싶어했다. "그동안 짐은 수많은 가람을 짓고, 경전을 반포하

며, 스님네들을 지원했소이다. 그게 어디 보통 공덕이었습니까." 이 은근한 자랑에 달마는 차갑게 응수했다. "황제께서는 아무런 공덕도 쌓지 못했습니다." 무제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무제는 남부한 달마에게 다시 물었다. "당신은 그동안 부처님(佛)과 진리(法)와 수도자(僧)를 향한 내 헌신과 공양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단정하는 거요. 그럼 당신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어라고 생각하시오(如可是聖諦第一義)?" 달마의 대답은 무제의 예상을 빗나가고 있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雖然無聖)." 짜증이 나기 시작한 무제가 마지막으 물었다. "그런데 당신은 어째서 스님 행세를 하고 있소. 당신은 대체 누구요(對朕者誰)?" 달마는 이 물음에 "나도 모르겠소(不識)"하며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주변으로부터 달마가 문수보살의 화신이었다는 말을 듣고 무제가 부러부러 달마를 보냈지만 달마는 깊은 산속 소림사라는 토굴 속으로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그는 세상과의 인연을 끊고 면벽의 화선으로 9년을 보냈다. 그에게는 어느새가 벽관 바라문(壁觀波羅門)이란 별명이 붙어졌다. 이때의 '벽'에는 여러 의미가 중첩되어 있다. 그 가운데 진리가 가진 함축함과 초

불교사전의 금자탑! 불교대사전 출간!

佛敎大辭典

THE ENCYCLOPEDIA OF BUDDHISM

最多語彙 · 最新譯解 · 最善編輯

- ① 제작기간 10년, 기존의 불교사전과 전혀 다른, 고대에서 현대까지 불교의 핵심적인 용어 6만3천여개를 선정하여 문장을 간결하고 평이하게 현대적 어휘로 표현하였다.
- ② 가능한한 각 용어 마다 범어·팔리어·티베트어 등 원어를 찾아내어 표시하였다.
- ③ 한글 세대를 위하여 한문은 괄호안에 넣었다.

또한 불교의 세계화를 도모하고자 영국 옥스포드판 「漢英佛學大辭典」을 부록으로 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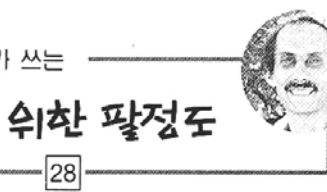
최고급양장/크라운판 上·下 3,600면/정가220,000원

도서출판 흥법원 · 서울 중로구 건지동 55-2 TEL(02)734-7614, 739-8745, 팩스735-2344

놓는 마음으로 일하라

수행자는 집착과 분별에서 벗어나 마음챙김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마음을 챙기는 그 상태를 우리 내면의 깊은 곳까지 끌어들이야 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현재의 생각, 습관 등의 것이 어떤 상태에 있는 조건인가 하는 것이다.

모든 일이 자체적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놓아두면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점점 더 고요해질 것이다. 숲속에 있는 맑은 연못처럼 될 것이다. 그때에 별의별 기이하고 희귀한 동물들이 그 못에 몰려 마시러 오는 것과 같이 우리는



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며, 그 자리에서 깊은 수행을 이룰 수 있다. '스물 네시간' 혹은 '하루'는 마치 허공을 가르는 새들과도 같이 순간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것으로 결코 잡을 수 없다. 우리는 시간을 잡을 수도 없으며, 또 우리 자신 또한 잡을 수 없다.

모든 것 無로 돌아가니 보상·칭찬 바라지 말라 크게 놓을때 큰 평화 얻어

모든 존재의 본성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 희화하고 기이한 것들이 수없이 오고 가는 것을 보게 되겠지만 우리는 여전히 고요한 채로 있는 것이다. 이잔차 스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놓는 마음으로 하라. 어떠한 보상이나 칭찬도 기대하지 말라. 조금 놓아버리면 조금의 경화가 올 것이다. 크게 놓아버리면 큰 경화를 얻을 것이다. 만일 완전히 놓아버리면 완전한 평화와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세상을 상대로 한 그대의 싸움은 끝을 보게 되리라"고 말했다.

정정 ③

사람은 제각기 자연스러운 삶의 속도가 있다. 어떤 사람은 나이 50세에, 어떤 사람은 65세에 어떤 사람은 90세에 세상을 뜨게 된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수행도 다 똑같을 수가 없다. 이런 문제를 놓고 노심초사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단지 마음챙김에 노력하면 된다.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17

이들 칸, 단, 상를 만족할 때 '같다'고 하며 기호로서 '='를 사용한다. '무명이 있음으로 행이 있다'는 명제에 '행이 있기 위해서는 무명이 전제'가 된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무명→행'의 관계는 '무명=행'이 된다.

행 또한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오직 있는 그대로에 대해 마음을 챙기는 것이다. 자신의 마음을 곧자 들여다보는 일이란 고와 고의 원인과 고의 끝을 보는 것이다. 하지만 많이 참고 견디지 않으면 안된다. 부처님은 스승 밑에서 적어도 5년은 머물러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불교와 수학 72

인생 방정식

김용운

'넋'이 2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방정식의 해, 즉 $X=2$ 를 만족하는 수는 $x=\sqrt{2}$ 이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라는 물음에 대해서 사람의 일생의 모습을 제시한 12인연(十二因緣)이 있다. 굳이 수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인간=무명→행→...→老死(老死)이다. 정후의 현상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기에 '무명→행(行)'의 '→'는 '='와도 같은 것일까? 일반적으로 '같다'는 것은 다음과 같이 쓰인다.
① 생동치처럼 같다(완전히 합쳐지는 경우)
② 부자간처럼 같다(같은종인 경우)
③ 좌우 두 손과 같은 경우(대칭적인 경우)
이들은 ①의 경우를 제외하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뒤집거나 확장 등 어느 물리적 작업을 통해서만이 일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들 3가지 경우에는
A는 A와 같다. B와 B가 같으면 B와 A도 같다. C와 C가 같으면 A와 C는 같다.

어리석음을 말하고 있다. 지난호에서는 귀납법에 관해서 설명했다. 자연수 n에 관한 명제 P(n)이 항상 성립하는 조건으로서 (1) n=1일 때 성립하고, (2) n=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할 때 n=k+1일 때 성립한다면 어떤 n에 관해서도 성립한다. 자연수 전체에 관통하는 연기의 이(理)를 파악함으로써 수학적 귀납법이 성립한다. 귀납법은 자연수 전체가 연기의 이(理)에 얽혀 전체가 하나라는 인식에서 출

발하는 것이다. 한편 석가모니는 '12인연'이 누구에게나 성립하는 사실을 알고 인간의 마음에 관통하는 연기의 이를 파악했다. (아함경) '인과상응(因果相應)'에서는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비구(수행자)들이여, 연기란 무엇이나, 비구들이여 무명(無明)에 의해 행(行)이 있다. 행(行)에 의해 식(識)이 있다. 식(識)에 의해 명색(名色)이 있다. 명색(名色)에 의해 육처(六處)가 있다. 육처(六處)로서 촉

먼저 대상을 깊이 관찰하고, 그것의 고귀함을 보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나면 그것들이 우리의 세계에 들어와 '단순한 진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게 그대로 놓아두어라. 한 스님이 수년간의 고행을 끝내고 자신의 깨달음을 인가받기 위해 스승을 찾았다. 스승은 제자를 받보나무 아래로 데리고 갔다. 받보나무는 제자가 스승을 처음 만났을 때에도 그 자리에 서 있었던 나무였다.

스승은 "이 나무가 얼마나 자랐느냐. 예전보다 많이 자라지 않았나"라고 말하고 나무가 서있는 맞은편 동산으로 올라갔다. 제자는 스승을 쫓아갔다. 잠시 후 스승은 "이곳에서 어떻게 보이느냐. 받보나무가 너무 작아 보이지 않느냐"고 말했다. 제자는 이때 큰 깨달음을 얻었다.

우리는 주변의 유·무정물에서 물, 생각, 감정 등 그 어느 것도 영리한 불찰을 수 없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모든 것은 변화한다. 우리와 우리의 주변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여기에 주목할 때 고귀한 삶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다. 팔정도는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부처님은 "삶에서 행복과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수행의 방편이 있다. 이 방편은 아주 간단해서 온종일 앉아 있을 필요도 없고 사원의 드락을 거닐 필요도 없다"고 우리를 설득하셨던 것이다.

번역=오종욱 기자 (gobaou@buddhania.com)

인간=무명→행→...→老死 12인연은 인생 전개과정 설명 연기의 理 인생방정식의 해답

(惑), 업(業), 고(苦)의 관점에서 12인연을 보았다. 12인연의 큰 의미는 무명(無明)에서 시작해서 차례로 도미노처럼 행(行)에 이르고 행(行)에 걸러들기에 식(識)이 나오고 식(識)에서 명색(名色)…… 생(生), 그리고 노사(老死)에 이른다. 또 반대로 무명(無明)이 없다면 모든 고(苦)가 없다. 인간은 과거, 현재, 미래에 연속된 실체(常性)로서 존재한다고 식하고 있으나 사실은 연기(緣起)로 얽혀져 있는 무상에 불과하고, 환상의 존재이며 과거, 미래에 시달리는

이 논리는 n이 있기에 '(n+1)'이 있고, '(n+1)'이 있기에 '(n+2)'가 있다……'는 것과도 같다. 특히 연기의 계열은 불안한 인간의 존재를 조명한 생기(生起)와 소멸(消滅)의 철리를 말한 것이다. '1이 있음으로써 필연적으로 2가 생기는 것처럼 인간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위대한 힘의 작용으로 이승에 몸이 주어지면서 인생이 시작된다. 그 '몸'에는 절로 '마음'이 생기고, 마음이 여러 대상을 감지·인식하고, 그 인식한 것을 좋고 싫어하는 여러 감정을 일으키고, 그 감정에 따라 욕구가 발생하고, 그 욕구를 만족시키려 행동하고 이것을 되풀이 하는 사이에 경험과 체험이 마음과 몸에 배 인간성이 형성되어 간다.

인간은 이것을 겪으면서 일생을 보내는데 살건 좋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늙어 죽는다. 불교는 끝이 인생방정식의 해를 제시하는 것이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영혼을 천도하는 연화심

"귀신의 병은 100% 낫는다."

구천에서 떠도는 영혼들을 기를 통해 저승길로 인도하는 연화심 보살의 영능력 세계!

뚜렷한 병명 없이 아픈 사람들이나 신이 내렸다고 하는 사람들을 손하나 대지 않고 치유하는 신통력을 지닌 연화심 보살

"기를 모으면 영혼을 부를 수가 있는데 빛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현생에서 지은 업의 크고 작음에 따라 색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저승에 가지 못하고 떠도는 혼들을 사후세계로 보내주면 혼령이 붙어서 원인 모르는 병으로 고생하던 사람들이 씻는 듯이 낫게 됩니다."

-〈여성중앙〉-

신국판 240쪽/값6,000원

• 읽고 난 후 저자에게 문의하실 분은 (지정장서)로 연락하세요
전화: (052)264-6351

도서출판 서울 관악구 남현동 1054-5호 중앙B/D
출판사 전화: 3474-3521(영입부) 팩스: 3474-3524